

# 전남정책자문위 미래 발전정책 발굴

50여명 참석 상반기 전체회의

제4차 종합계획 정책과제 발표

대선공약 반영 사업 등 정책제안

전남도는 지난 18일 오후 상반기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전남의 발전을 이끌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전문가 집단과 머리를 맞댔다. <사진> 이날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회의는 인원을 최소화 해 김영록 전남지사, 박기영 정책자문위원장을 비롯해 정책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와 정책 과제 발표 및 토의가 이어졌다. 특히 민선 7기 3주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남도 발전을 견인할 '전남발전 정책과제 발굴사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청사진과 국토비전을 담은 '제4차 전라남도 종합계획(2021~2040)'안에 대한 정책과제 발표가 있었다.

이어진 정책과제 토의에선 전남발전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대형 국책 사업 등 대선 공약 반영 사업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 등 도민이 체감하고 전남의 발전을 가져올 정책사업을 비롯해 향후 전남 개발과 비전을 담은 종합계획 등에 대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의 심도있는 자문과 정책제안이 이어졌다.

전남도는 이번 토의에서 나온 정책자문과 의견



을 토대로 발굴사업의 내용을 고도화하고 완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필요성 및 타당성 등 논리 보완을 거쳐 향후 국정과제 선정 및 국가사업에 반영되도록 당정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전남의 발전과 비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집단 지성을 모으고 이를 통해 도민 기대에 부응하는 합리적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발굴된 주요 정책사업이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끊임없이 소통해 국가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문위원의 풍부한 경험과 새로운 생각이 전남도정에 반영되도록 도정 자문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상반기 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대면·영상을 함께 실시했다.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청년시책, 교육복지, 탄소중립 분야 등 분과별로 내실있는 조언과 제안이 많이 나와 해당 정책에 반영됐다.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는 '전라남도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도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 등을 자문한다. 투자유치, 전략산업, 관광문화, 농업 등 12개 분과, 299명으로 구성됐으며, 정책자문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각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한국노총 소방노조

### 전남본부 출범식

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전남본부(위원장 박석호)가 지난 16일 전남도 체육관에서 출범식(사진)을 열고 "민중화의 성지, 생명의 땅 전남에서부터 잃어버린 노동기본권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이하 소방노조) 전남본부는 출범선언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을 지키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이라며 "노후장비 개선, 인력 확충, 순직·공상자 예우 강화, 각종 화재·구조·구급 수당 개선, 소방관 공상추정법 제정 등 현장의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현안들을 상급단체인 공무원연맹, 한국노총과 함께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 "소방노조 전남본부 출범은 전국 18개 소방본부에 전국소방안전노동조합 지역분부를 설립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전남본부 역시 빠른 시일 내에 관내 소방서에 지부를 설치하고, 현장 중심의 노조 활동을 펼쳐 전남지역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석호 전남본부 위원장 등은 이날 오후 김영록 전남지사와 만난 자리에서도 소방공무원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청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명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매칭했다. 또한 중국 현지 상담장에 도내 수출기업의 제품 샘플을 전시해 바이어가 실제 제품 샘플을 체험하도록 했다.

그 결과 10개 사 상담액 188만 달러, MOU 130만 달러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이번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추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전남도, 중국 장시성과 130만달러 수출 MOU

전남도가 전남중소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중국 장시성과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를 벌여 130만 달러 MOU 체결 성과를 거뒀다. 이번 온라인 경제·무역 상담회는 지난해 12월 전남도-장시성 간 온라인 교류금 회담에서 합의한 경제·통상 분야 협력사업의 하나로 양 지역 간 경제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이뤄졌다. 장시성은 전남도와 2004년 우호

교류를 시작해 2012년 자매결연을 한 지역이다. 1부 행사에서는 전라남도 현황 설명에 이어 장시성 바이어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류, 건강기능식품, 곡류 가공식품, 화장품 등 10개 사 20여 제품을 소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도내 수출기업 10개 사와 장시성 바이어 18개 사가 참가한 1대1 매칭 제품 상담회를 온라인 화상상담 형태로 진행했

다. 중국 현지 바이어에게 수출제품 설명자료를 사전에 송부하고 상담을 원하는 도내 수출기업을 매칭했다. 또한 중국 현지 상담장에 도내 수출기업의 제품 샘플을 전시해 바이어가 실제 제품 샘플을 체험하도록 했다. 그 결과 10개 사 상담액 188만 달러, MOU 130만 달러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도 전남도는 이번 경제·무역상담회에 참여한 중국 현지 바이어와 수출기업 간 추가 계약이 성사되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 생산 급감 우럭조개 종자 국내 최초 생산 성공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이 국내 최초로 우럭조개 <사진> 종자 생산에 성공했다.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2020년부터 우럭조개 종자생산 기술 연구를 시작, 전년도 종자생산 기술 확보에 이어 바닥면적 9.25㎡에서 3.7mm 인공종자 약 140만 마리를 생산하는 고밀도 종자생산에 성공했다.

2020년 생산한 인공종자는 중간양성을 통해 2.2cm까지 성장해 이를 활용한 양성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자원 조성을 위해 우럭조개 인공종자 약 45만 마리를 자연서식지에 방류할 예정이다.

이정우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미래수산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바탕으로 우럭조개 인공종자 양식기술 확보에 주력, 어업인 소득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럭조개는 왕우럭조개, 꼬끼리조개와 같이 수관부를 사용하는 중형 패류다. 수관부는 연체동물(패류)에서 호흡수, 먹이, 배설물 따위를 드나드는 관이다. 우럭조개 소매단가는 마리당 1500원으로 고가에 거래되고 있어 인공종자 양식에 대한 산업적 기



대치가 높다.

우럭조개는 국내에서 왕우럭조개와 함께 2009년 16t가량을 생산했으나, 이후 생산량이 급감해 가격이 오르고 시장에서 귀한 수산물로 대접받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북아메리카, 유럽 등 서양권 국가에서 주로 식용되며, 특히 미국에서 가리비, 굴과 함께 선호하는 식용 패류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간 1만~3만 톤이 소비되고 있어 양식산업화가 진전되면 수출 전략품종으로 활용 가치가 크다. 국내시장에서도 자취를 감추고 있는 왕우럭과 꼬끼리조개의 대체 상품으로 성장가능성이 크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쌀, 15년째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 대상

전남 친환경쌀이 올해 '여성이 뽑은 최고의 명품 대상'을 수상해 소비자가 가장 신뢰하는 전국 최고의 쌀로 평가받았다. 여성이 뽑은 명품 대상은 소비자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명품을 부문별로 선정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업체나 기관의 브랜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에서 후원한다.

올해로 23회째인 명품 대상은 전국 성인 여성 1만 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품질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20개 부문을 선정한다.

이는 전남도가 그동안 수확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일반쌀과 혼종을 방지하고, 친환경쌀 전문 도정공장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인 쌀 가

공시설 현대화사업을 매년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추진하는 등 최고 품질의 쌀을 생산, 안정적으로 공급한 노력이 주요했다는 평이다.

강종철 전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쌀 소비 선택을 주도하는 여성이 15년 연속 전남 친환경 쌀을 명품으로 선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고품질 안전한 쌀을 공급해 국민 건강을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 친환경농업 인증면적은 지난해 말 기준 4만5928ha로 전국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기인증이 2만3770ha로 친환경농업 육성 이래 처음으로 무농약 인증면적을 넘어서 친환경농업이 내실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걷고 싶은 전남 숲길' 6곳 선정

전남도가 수려한 산림자원과 청량한 수변길의 조화가 뛰어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우울감을 극복할 '걷고 싶은 전남 숲길'로 해남 두륜산 장춘천년숲길 등 6곳을 선정했다.

걷고 싶은 전남 숲길 선정은 산림 휴양·치유 콘텐츠 제공을 통해 도민의 코로나 우울을 극복하고 전남의 역사문화 자원과 숲을 연계한 산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4월 '물길 따라 걷는 힐링 숲길' 주제로 시군 공모를 한 결과 15개소가 신청, 경관·산림·디자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해남·계곡·호수 3개 분야별 2개소씩 6곳을 1차 선발했다.

이어 친환경성, 심미성, 활용성, 다른 지역과 차별성, 관리상태 등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전남도

청 누리집과 SNS 도민 참여 설문조사를 합산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최우수상에 해남 두륜산 장춘천년숲길, 우수상에 구례 천은사 수변숲길과 무안 송계 솔바람숲길, 장려상에 광양 어치계곡 청량숲길과 목포 양을산 수원지숲길, 진도 미르 트레킹길이 뽑혔다.

두륜산 장춘천년숲길은 맑은 시냇물을 끼고 있어 음이온이 풍부하다. 천연기념물인 왕벚나무 자생지와 국보인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이 있어 코로나 우울감 해소는 물론 역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최적의 장소로 손꼽힌다. 천은사 수변숲길은 수종투와 천은제를 품은 무장애 숲길이다. 드라마 '미스터선샤인' 촬영지로 유명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신축 착공기념 경품 大 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충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